

한 학기 한 권 읽기

백년을 건너온 약속

오늘의 청소년 문학 39

이진미 소설



주제어 #역사소설 #일제강점기 #간토대지진 #타임슬립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읽기 전 활동	
학번:	이름:

1. 다음 세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 여러분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작품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3. 소설의 제목과 목차를 보고 다음 중 소설과 가장 잘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골라, 이유를 써 보세요.



출처: 픽사베이

- 그림 :

- 그림을 고른 이유 :

2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p style="text-align: center;">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p>			
<p style="text-align: center;">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p>			
<p style="text-align: center;">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p>			

3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4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독서일지 작성하며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쪽수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5~6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읽는 중 활동(질문으로 책 깊이 읽기)	
학번:	이름:

책 전체 내용 정리하기

1. 다음 단어들을 사용하여 소설 《백년을 건너 온 약속》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린, 할머니, 하루, 불단, 펜촉, 정필, 정필의 아버지, 정훈, 일본, 1923,
간토 대지진, 화재, 폭동, 우물, 독, 조센진, 단발머리, 히데코, 스미코, 펜촉,
낭독극, 약속은 지금도, 유카리

책 더 깊이 읽기

1. 11쪽에 ‘린은 몸서리를 쳤다.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로 추측할 수 있는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린이 9살에 겪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린의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3. 15쪽을 보면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한 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추모해 주기를 원하나요?

4. 16쪽에서 마에다 스미코는 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가 네게 전해지는 일이 없기를 할미는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결국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또한 신께서 주신 나와 너의 운명으로 여길 수밖에.

5. 정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정필의 동생 정훈이 수재인데도 지계꾼 역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7. 린의 팔에는 아무도 모르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린은 어디에서 화상을 입게 된 걸까요?

8. 30쪽을 참고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나 흉터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써 보세요.

9. 1923년 양정필의 도쿄에서의 삶을 보면 당시에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고 있는 내용을 써 보세요.

10. 왜 린과 할머니는 동일한 악몽을 꾸는 걸까요?

11. 하루는 린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해?”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쪽?”

12. 왜 일본인들은 1923년 간토 대지진의 책임을 조선인에게 넘기고 조선인들이 방화, 강도, 폭동,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13. 하루와 린이 과거로 돌아가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4. 80쪽을 보면 하루는 “가해자를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피해자를 그저 무시해 버릴 수도 없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 린은 할머니가 일부러 시골을 떠나 공터가 있는 도쿄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할머니가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6. 125쪽에는 ‘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17. 1923년 정필은 절에서 노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 133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을 복선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 중 어떤 일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히데코의 손에서 들꽃이 우수수 떨어졌다.
바람에 날린 꽃송이들이 남자들의 발에 짓밟혔다.

19. 소설을 읽으면 히데코, 스미코, 린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20. 린의 엄마 마에다 유카리는 소설의 마지막에 태도가 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7~8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읽은 후 활동(소설 속 인물의 성격, 사회·문화적 배경 이해하기)	
학번:	이름:

1. 소설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장면에 대한 설명 및 선택한 이유 :

2. 소설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각각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을 주거나 받은 사람	그때의 사연
(예) 린의 상처를 보고 하루가 보인 반응	하루 : 누구든지 상처가 있음을 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상대를 편하게 해 주는 인물
	린:
	정필 :
	린의 할머니 :
	의사 :

3. 소설의 소재나 인물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1923년 소설 속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모두 찾아 써 보세요.

(개인 활동 → 모둠 활동 → 다른 모둠 발표 필기)

작품의 소재, 인물의 행동		소설 속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시대적 상황
(예) 경남 합천에 사는 정훈은 공부를 잘하지만 지게꾼 일을 함.		당시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어린 아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음.
개인		
우리 모둠		
다른 모둠		

4. 다음은 전광용의 <꺼삐딴 리>에 등장하는 이인국이라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소설 속의 의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初診)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진(豫診)은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 제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지기(知리)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의 미수(未收)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5. 작가가 제목을 《백년을 건너온 약속》이라고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9~10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백년을 건너온 약속》
수업 주제: 읽은 후 활동(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및 소감 나누기 활동)	
학번:	이름:

뉴스 내용 분석 및 비판적으로 읽기 -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1. 올해는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일본 간토대지진 99주년이었던 지난해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야미초 공원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1일 일본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보수 언론이 당시 유언비어로 6000여명의 조선인이 대량 학살된 사실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은 여전히 조선인 대량 학살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잘못된 과거사를 조금씩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일본 민영방송인 닛폰테레비는 올해가 간토대지진 100주년이라며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정보 수집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량 학살을 예로 든 기획 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 한반도 출신을 많이 학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9월 1일 도쿄에서 열리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보도하며 재일 교포 3세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재일 교포 3세는 “100년 전 학살이 일어났을 때는 저지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과거사를 쉽게 언급하고 학살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전형적인 유언비어로 조선인들이 학살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도요대 사회학부의 오가사하라 모리히로 교수는 “특히 큰 사건이나 위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았을 때 자신 안의 불안감과 밖의 상황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언비어를) 입증할 만한 증거 같은 것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일도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차례 접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닛폰테레비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1면에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각지에서 결성된 자경단이 일본도와 도끼, 쇠갈고리 등으로 무장하고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심문하고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일본 보수 언론의 이러한 과거사 인정은 이례적일 뿐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우익 인사들은 조선인 학살 사실을 여전히 부정한다. 매년 9월 1일 도쿄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고 과거 도쿄도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익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6에 추도문을 보냈다가 2017년부터 중단했다.

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재백서 역시 간토대지진 피해 상황을 특집으로 다뤘지만 조선인 학살 부분은 “학살이 발생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고 단순 설명하는 데 그쳤다.

출처: 김진아 특파원, <日보수언론, 또 과거사 직시… “대지진 때 유언비어로 조선인 학살”>,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7005004&wlog_tag3=naver)

- 간토 대지진의 진행 과정 :

-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 대량 학살이 생긴 이유 :

- 기사의 내용에서 비판할 점이나 아쉬운 점 :

2. 위의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주제 중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인터넷이나 Chat GPT를 활용하여 더 조사하고 발표해 보세요. (인터넷 조사 활동 시 출처를 반드시 씁니다.)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p.20)

☆ 1920년대 일본으로 간 한국인들의 생활상

☆ 간토 대지진

☆ 그 외 관련 주제

3. 수업을 마치며 느낀 점을 소설의 내용과 연결해서 써 보세요.